

# 대망서 시에 나타난 여성 상징 분석

김희진\*

---

◁ 목 차 ▷

---

- I. 들어가기
  - II. 욕망과 절망의 대상
  - III. 상실과 자기 극복의 형상화
  - IV. 순수와 회귀 본능의 상징
  - V. 나오기
- 

## I. 들어가기

「雨巷」詩人 대망서는 西歐의 象徵主義·超現實主義 등 다양한 외래 문예사조를 수용하여 이를 중국 전통시와 전통적 정서 위에 조화시키고 독특한 풍격의 중국적인 상징시로 창조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상징주의 문예사조 내지 상징시와 관련하여 대망서와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이것은 중국 현대시단에 그가 남긴 영향이 지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 現代派라는 유평적 관점과 외국 문예사조와의 영향관계 규명에 집중되어, 여전히 그의 시가 지닌 서정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인의 작품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테마를 통한 작품의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시인의 의식세계를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으며 연구 영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여성을 테마로 대망서의 시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입체적인 조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성이라는 시적 대상에 주목한 이유는 먼저 그의 시세계가 일정한 여성 편향성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왜 이처럼 여성 편

---

\* 극동대학교 중국어학과 전임강사

향적 성향을 드러내는가에 대하여 그의 傳記와 문학적 경험을 토대로 그 원인을 일정 부분 규명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전기에 바탕을 둔 해석 방식은 시인의 창작 과정과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작품 안에서 여성 상징이 표상하는 의미와 본질을 문학적인 시각으로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중심 테마인 여성 상징을 문학적 맥락과 서정성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시인의 의식 세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그의 시세계 전반의 특질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2)</sup>

## II. 욕망과 절망의 대상

대망서의 시집 《我底記憶》과 《望舒草》 중 많은 시편들은 사랑과 이별의 노래이며, 실제로 施絳年이라는 여인과의 사랑·실연 체험이 바탕을 이룬다. 그녀는 대망서의 삶과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여성으로, 여러 시편에서 그녀와의 우여곡절 -약혼과 파혼- 많은 사랑을 나누며 느꼈던 愛憎을 발견할 수 있다.

|                |                           |
|----------------|---------------------------|
| 我覺得我是在單戀着，     | 난 짝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네.          |
| 但是我不知道是戀着誰：    | 그러나 알 수 없네,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
| 是一個在迷茫的烟水中的國土嗎 | 끝없이 아득한 안개 낀 수면 속의 국토인가,  |
| 是一枝在靜默中零落的花嗎   | 정적 속에 시들어 떨어지는 한 송이 꽃이던가, |
| 是一位我記不起的陌路麗人嗎？ |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낯선 아름다운 아가씨던가? |
| 我不知道。          | 모르겠네.                     |
| 我知道的是我的胸膨脹着，   |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가슴이 부풀고,      |
| 而我的心悸動着，       | 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음을,          |
| 象在初戀中。         | 첫사랑에 빠진 듯                 |
| 〈單戀者〉          | 〈짝사랑에 빠진 사람〉 1연           |

話者 스스로 「짝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듯이, 「한 송이 꽃」 「아름다

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戴望舒 詩에 나타난 페미니즘〉, 《중국문학연구》: 18집, 1999년 6월, 165-185쪽 참조.

2) 본고에서 인용한 시는 梁仁 編, 《戴望舒全編》(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91년)을 텍스트로 하였다.

운 아가씨」는 바로 施絳年이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다. 그녀는 문단 동료인 施蟄存의 여동생으로, 비록 대망서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狂的으로 그녀를 사랑하였다.

|                                                                |                                                                                       |
|----------------------------------------------------------------|---------------------------------------------------------------------------------------|
| 我將對你說我的戀人，<br>我的戀人是一個羞澁的人，<br>她是羞澁的，有着桃色的臉，<br>桃色的嘴脣，和一顆天青色的心。 | 당신에게 내 연인을 소개하리.<br>내 연인은 부끄럼쟁이,<br>그녀는 부끄럼쟁이, 복숭아빛 얼굴,<br>복숭아빛 입술 그리고 하늘빛 마음을 지녔답니다. |
|----------------------------------------------------------------|---------------------------------------------------------------------------------------|

|                                                                                                        |                                                                                                                                                       |
|--------------------------------------------------------------------------------------------------------|-------------------------------------------------------------------------------------------------------------------------------------------------------|
| 她有黑色的大眼睛，<br>那不敢凝看我的黑色的大眼睛—<br>不是不敢，那是因為她是羞澁的：<br><br>而當我依在她胸頭的時候，<br>你可以說她的眼睛是變換了顏色，<br>天青的顏色，她的心的顏色。 | 그녀의 검은 커다란 눈동자.<br>나를 응시하지 못하는 검은 커다란 눈동자—<br>쳐다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부끄럼<br>쟁이기 때문;<br>내가 그녀의 가슴에 기댈 때,<br>당신은 그녀의 눈동자 색깔이 변했다고 말하리,<br>하늘빛, 그녀 마음의 빛깔로. |
|--------------------------------------------------------------------------------------------------------|-------------------------------------------------------------------------------------------------------------------------------------------------------|

|                                                                                  |                                                                                                                       |
|----------------------------------------------------------------------------------|-----------------------------------------------------------------------------------------------------------------------|
| 她有纖纖的手，<br>它會在我煩憂的時候安撫我<br>她有清朗而愛嬌的聲音，<br>那是只向我說着溫柔的，<br>溫柔到銷熔了我的心的話的。<br>〈我的戀人〉 | 그녀의 섬섬옥수,<br>내가 번민에 빠질 때 위로해 주고,<br>그녀의 맑고 애교있는 목소리,<br>내게만 부드럽게 속삭일 뿐,<br>그 부드러움에 내 가슴의 말도 녹아버리네.<br>〈나의 연인〉 1,2,3 연 |
|----------------------------------------------------------------------------------|-----------------------------------------------------------------------------------------------------------------------|

「복숭아빛」 얼굴과 입술, 「하늘빛 마음», 「섬섬옥수», 「검은 커다란 눈동자», 「부끄럼쟁이», 「애교 있는 목소리」의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매력적인 여인의 자태와 모습을 초상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여성인 「그녀」는 施絳年일 수도 있고 詩的 話者가 꿈꾸는 이상형일 수도 있다. 시적 화자가 사랑의 욕망을 느끼는 대상임은 분명하다. 〈무츠코(夢都子)〉에는 求愛의 표현 나아가 육체적 욕망까지 나타난다.

|            |                          |
|------------|--------------------------|
| 她有太多的蜜餞的心— | 그녀에겐 과일 젤리 같은 마음이 아주 많다. |
|------------|--------------------------|

在她的手上, 在她的脣上:  
然后跟着口紅, 跟着指爪,  
印在老紳士的頰上,  
刻在醉少年的肩上。

我們是她年輕的爸爸, 誠然  
但也害怕我們的女兒到懷裏來撒嬌,  
  
因爲在蜜餞的心以外,  
她還有蜜餞的乳房,  
而在撒嬌之后, 她還會放肆。

你的襯衣上已有了貫矢的心,  
  
而我的指上又有了紙捻的約指。  
如果我愛惜我的秀發,  
那么你又該受那心愿的忤逆。  
〈夢都子-致霞村〉

그녀의 손안에, 그녀의 입술 위에:  
그런 후엔 잇달아 립스틱, 손톱자국을,  
늙은 신사의 뺨 위에 남기고,  
취한 소년의 어깨 위에 새긴다.

우리는 그녀의 젊은 아빠, 확실히  
하지만 우리의 딸이 품속으로 파고들어 애  
교부릴까 두려워 할 뿐  
왜냐하면 과일 젤리 같은 마음 말고도,  
그녀에겐 과일 젤리 같은 젓가슴이 있으니,  
그리고 애교를 부리고 나선, 방자해질 터이니.

그대의 블라우스 위로는 이미 큐피트의 화  
살을 맞은 심장이,  
나의 손가락엔 종이로 엮은 반지가 있다.  
만일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안타까워한다면,  
그럼 그대 또한 그 소망의 거부를 당하겠지.  
〈무즈코(夢都子)-하춘에게〉

총 3연으로 구성되었으며, 「딸」같은 어린 소녀와 「젊은 아빠」인 듯 나이 든 남성 사이의 애정심리와 에로틱한 애정행각을 묘사하였다. 1연은 어린 소녀지만 사랑 경험이 많은 듯, 색색의 「과일 젤리」처럼 여러 마음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가 「늙은 신사」와 「취한 소년」에게 남긴 「립스틱」과 「손톱자국」에서 만남과 헤어짐의 경험도 추측해 볼 수 있다. 2연은 「과일 젤리」처럼 부풀어 오른 젓가슴과 애교로 남성을 유혹하는 소녀 그리고 적극적인 소녀의 유혹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혹시 소녀가 버릇없이 행동할까 근심하는 남성의 모순된 심리묘사이다. 3연은 「그녀」와 자신의 사랑을 확인 후, 서로를 향해 아픔 없는 사랑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나이 차이 많은 남녀의 애정 행각과 심리 묘사라는 모티브에서 대망서와 施絳年の 애정을 비유한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sup>3)</sup> 그러나 「딸이 품속으로 파고들어 애교부릴까 두려워 할 뿐」처럼 소녀의 육체적 충동을 은근히 기대하는 남성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을 볼 때, 일본인 댄서의 求愛 행동과 표현을 빌어서, 여성을 향한

3) 孫玉石 主編《戴望舒名作欣賞》(北京: 中國和平出版社 1993년), 139-140쪽.

시인의 육체적 욕망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육체적 욕망과 구애는 「립스틱, 손톱자국」 「과일 젤리 같은 젓가슴」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심장」 등 여성의 신체·사랑 표현을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산보 첫 번째〉에서도 에로틱한 사랑의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

|                      |                     |
|----------------------|---------------------|
| 我的小戀人, 今天我不對你說草木的戀愛, | 귀여운 나의 연인, 오늘 그대에게  |
| 却讓我們的眼睛靜靜地說我們自己的,    | 초록의 사랑을 말하기보다,      |
| 而且我要用我的舌頭封住你的小嘴脣了,   | 눈동자로 우리 자신을 조용히 얘기  |
| 如果你再說: 我已聞到你的愿望的氣味。  | 하기를,                |
|                      | 그리고 나의 혀로 그대의 입술을 막 |
|                      | 으려 하오,              |
|                      | 그대가 다시 말한다 해도: 나는 이 |
|                      | 미 그대 욕망의 체취를 맡았어요.  |
| 〈款步 一〉               | 〈산보 첫 번째〉 3연        |

|              |                          |
|--------------|--------------------------|
| 而這裏, 鮮紅竝寂靜得  | 여기 네 입술처럼                |
| 與你的嘴脣一樣的楓林間, | 새빨강고 쓸쓸한 단풍 숲에서;         |
| 雖然殘秋的風還未來到,  | 비록 남은 가을바람 아직 불어오지 않았어도, |
| 但我已經從你的緘默裏,  | 난 벌써 네 침묵에서              |
| 覺出了他的寒冷。     | 추위를 느꼈다.                 |
| 〈款步 二〉       | 〈산보 두 번째〉 중에서            |

인용한 두 작품은 연인으로부터 촉발된 사랑의 욕망과 상실의 비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연작시이다. 〈산보 첫 번째〉의 「나의 혀로 그대의 입술을 막으려 하오」에서 나타나듯, 사랑하는 여인과 산책하면서 나는 입맞춤의 에로틱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나는 이미 그대 욕망의 체취를 맡았어요」라며 거부할 지라도 여인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話者의 원초적 욕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산보 두 번째〉의 시적 화자는 입맞춤을 나눈 여인의 침묵으로부터 이별을 예감한 듯 상실의 절망 속으로 빠지고 있다. 연인과의 이별에 상심하여 비애에 빠지는 화자의 모습은 다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            |
|---------|------------|
| 願她溫溫的眼波 | 그녀의 따스한 눈길 |
|---------|------------|

蕩醒我心頭的春草：  
誰希望有花兒果兒？  
但願在春天裏活幾朝。  
〈斷章〉

可是只要你能愛我深，  
只要你深情不改，  
這今日的悲哀，  
會變作來朝的歡快！  
啊，我的歡愛！  
〈可知〉

내 마음의 봄풀을 흔들어 깨우길 바랄 뿐：  
누가 꽃과 열매 맺기를 희망하나요？  
다만 봄날에 며칠이라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  
〈파편〉 2연

그러나 당신이 나를 깊이 사랑할 수 만 있다면，  
당신의 깊은 情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비애는，  
내일의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아， 나의 환희!(歡愛) 여!  
〈알고 있는지〉 3연

여인을 향한 求愛의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작품이다. 「그녀의 따스한 눈길」, 「다만 봄날에 며칠이라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여인의 눈길과 몸짓에 一喜一悲하는 사랑에 빠진 남성 화자의 심정과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여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여인의 사랑이 사라진 현실은 비애와 고통의 공간이지만, 그 사랑이 존재하는 시공간은 환희와 즐거움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그녀」, 「당신」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화자의 강렬한 사랑과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화자는 그 여성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절망과 비애에 빠진다. 따라서 시인에게 여성은 사랑과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절망과 고독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다. 다음 시는 사랑하는 남성과의 이별을 읊은 〈전날 밤〉이다.

在比志步爾啓碇的前夜，  
托密的衣袖變作了手帕，  
她把眼淚和着脣脂拭在上面，  
要爲他壯行色，更加一點粉香。

明天會有太淡的烟和太淡的酒，  
和磨不損的太堅固的時間，  
而現在，她知道應該怎樣的忍耐：

比志步爾호가 출항하기 전날 밤，  
토미(托密)<sup>4)</sup>의 옷소매는 손수건으로 변해，  
그녀는 눈물과 연지를 닦아내며，  
그의 첫 출발을 위해，한 점 분 향기를 더한다.

내일이면 너무나 싱거운 담배와 술，  
흘러가지 않는 너무도 견고한 시간일 뿐  
지금，그녀는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안다：

4) 토미(托密)는 일본 댄서의 이름이다.

|                                           |                                                                 |
|-------------------------------------------|-----------------------------------------------------------------|
| 托密已經醉了, 而且疲倦得可憐.                          | 토미(托密)는 이미 취했고, 애처롭게 지쳤다.                                       |
| 這的橙花香味的南方的少年,<br>他不知道明天只能看見天和海—           | 이 등꽃 향기 같은 남방(南方)의 소년,<br>내일은 하늘과 바다만을 볼 수 있다는<br>것을 그는 모른다.    |
| 或許在“家, 恬蜜的家”裏他會康健些,<br>但是他的溫柔的親戚却要更瘦, 更瘦. | 어쩌면 “즐거운 나의 집”에서 그는 건강<br>할 지도,<br>그러나 그의 가냘픈 연인은 더욱 야윌<br>것이다. |
| 〈前夜〉                                      | 〈전날 밤〉                                                          |

이 시의 화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불분명하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여성에 가깝다. 떠나는 사람은 토미의 연인 「남방의 소년」이고, 보내는 사람은 댄서 「토미」이다. 그녀는 떠나는 연인을 위해 서글픈 마음을 숨기고 화장을 고친다. 이별 후, 그녀의 상심을 위로하는 것은 싱거워진 술과 담배뿐, 연인 「남방의 소년」이 그녀를 잊고 건강해지는 것과 반대로 토미는 술에 취해 고통스러운 심정을 달래면서 더욱 야윌어 간다. 이렇듯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때문에 절망에 빠진 토미의 모습은 다름 아닌 戴望舒 자신의 형상이다. 그는 토미의 슬픔을 통해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대망서는 1927년 4·12사변으로 인해 施蛰存의 집으로 잠시 도피하면서 施絳年을 향한 사랑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유학과 학위취득 그리고 안정된 직업을 얻은 후 결혼이라는 단서가 있기는 했지만, 1930년 초여름 그녀와 약혼했고, 1935년 5월 프랑스에서 귀국 후 정식으로 파혼하였다. 이 연애 기간에 창작된 여러 詩篇 안에는 여인을 향한 사랑의 욕망 그리고 이별로 인한 절망·비애가 담겨 있다. 시인이 목숨까지 걸 정도로 사랑하였지만<sup>5)</sup>, 짝사랑이라는 일방통행식 애정이었기 때문에, 달콤한 密語나 사랑의 감정 보다 힘들고 가슴 줄이는 그리고 失戀에

5) 痙弦, 《戴望舒卷》(臺北: 洪範書店 1983년), 236쪽에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약속대로 영안 공사 천운루에서 그녀를 만나 거닐고 있었다. 戴詩人은 돌연 히스테릭하게, 난간 쪽으로 올라가더니, 그녀에게 즉시 그와 결혼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였다……결국 그의 요구를 허락하였다.」(他約了她在永安公司天韻樓去閒逛, 戴詩人突然的歇司的裏, 跳上了欄杆邊, 要求她立刻應允與他訂婚, 否則他就從那兒跳下去.……允許了戴的要求.)

따른 두려움·상실감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 있다. 게다가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떨어져 프랑스 유학을 떠나야 했던 시인이 느꼈을 그리움과 절망은 남성 시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이별을 두려워하는 여성의 심성에 가깝고 그 중에서도 떠나버린 연인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여인의 의식 세계에 더욱 근접해 있다.

一枝, 兩枝, 三枝,  
床巾上的圖案花  
爲什麼不結果子啊!  
過去了: 春天, 夏天,  
〈妾薄命〉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침대보 위에 그려진 꽃은,  
어찌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秋天. 흘러가 버렸다: 봄, 여름, 가을.  
〈여인의 운명〉 1연

你舊日的蜜意柔情  
如今已拋向何處?  
看見我憔悴的顏色,  
你啊, 你默默無語!  
你會把我孤涼地拋下,  
獨自蹣跚地飛去,  
又飛到別枝春花上,  
依依地將她戀住

예전 그대의 달콤한 말과 따뜻한 마음  
지금 어디로 갔나요?  
초췌한 내 얼굴을 보고,  
그대, 그대는 묵묵히 아무런 말이 없군요!  
그대는 날 쓸쓸히 냉정하게 버리고,  
홀로 훨훨 춤추며 날아가 버리겠지,  
또 다른 봄꽃에게로 날아가,  
예전처럼 그 꽃과 사랑에 빠지겠지.

明朝曉日來時  
小鳥將爲我唱薤露歌:  
你啊, 你不會眷顧舊情  
到此地來憑弔我!  
〈殘花的淚〉

내일 새벽이 찾아올 때  
작은 새는 날 위해 輓歌를 부르겠지;  
그대, 그대는 옛정을 봐서라도  
이리와 날 위해 눈물 흘리지 주지 않겠니!  
〈시든 꽃의 눈물〉 5·6연

〈여인의 운명〉은 떠난 입을 기다리며 獨守空房하는 恨 많은 여인을 형상화 하였다. 시 속에 주체와 객체 모두 생략된 채, 침상 위에 그려진 꽃그림과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이라는 고전적이고 상징적 이미지만으로 고독한 여인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시든 꽃의 눈물〉은 꽃과 나비에 비유하여, 애인의 변심과 이별에 따른 상실감과 비애 그리고 애인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미 변심한 애인 때문에 초췌해진 話者와 미련 없이 떠나는



애인을 결코 붙잡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이다. 남성보다는 여성,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어울리는 이별의 자세로 여성 화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sup>6)</sup> 대망서는 남성 시인이지만 여성 화자와 여성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별의 슬픔과 절망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면서 극대화 시키고 있다.

### Ⅲ. 상실과 자기 극복의 형상화

撐着油紙傘，獨自  
彷徨在悠長，悠長  
又寂寥的雨巷，  
我希望逢着  
一個丁香一樣地  
結着愁怨的姑娘。

종이우산을 받쳐 들고, 홀로  
방황하네. 길고, 긴,  
적막한 비 내리는 골목에서,  
난 만나련다  
라일락처럼  
시름 맺힌 아가씨를.

她是有  
丁香一樣的顏色，  
丁香一樣的芬芳，  
丁香一樣的憂愁，  
在雨中哀怨，  
哀怨又彷徨：

그녀에겐  
라일락 같은 빛깔,  
라일락 같은 향기,  
라일락 같은 우수가 있다,  
빗속에서 슬퍼하고,  
슬퍼하며 방황하는:

她彷徨在這寂寥的雨巷，  
撐着油紙傘  
像我一樣，  
像我一樣地  
默默彳亍着，  
冷漠，淒清，又惆悵。

그녀는 이 비 내리는 쓸쓸한 골목을 방황한다.  
종이우산 받쳐 들고  
나처럼  
나처럼  
말없이 비척거린다.  
냉정히, 쓸쓸히, 슬프게.

她靜默地走近  
走近，又投出  
太息一般的眼光，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다가와서는,  
탄식하는 눈길을 던지고

6) 천이두 《綜合예의 의지》(서울: 일지사 1974년), 32-37쪽 참조: 시 속의 여성화법을 여성적 어법, 복종적·인고적 자세, 현실부재의 임에 대한 갈망 등으로 설명한다.

|            |                              |
|------------|------------------------------|
| 她飄過        | 그녀는 홀쩍 지나 간다                 |
| 像夢一般地,     | 꿈처럼,                         |
| 像夢一般地淒婉迷茫. | 꿈처럼 구슬프게 아련히.                |
| .....      | .....                        |
| 撐着油紙傘, 獨自  | 종이우산을 받쳐들고, 홀로               |
| 彷徨在悠長, 悠長  | 방황하네. 길고, 긴,                 |
| 又寂寥的雨巷,    | 적막한 비 내리는 골목에서,              |
| 我希望飄過      | 난 스치려다                       |
| 一個丁香一樣地    | 라일락처럼                        |
| 結着愁怨的姑娘.   | 시름 맺힌 아가씨를.                  |
| 〈雨巷〉       | 〈비 내리는 골목〉 1, 2, 3, 4, 5, 7연 |

戴望舒에게 「雨巷詩人」의 명예를 안겨준 대표작이다. 시의 배경은 1927년 공산당에 대한 蔣介石의 무력 탄압으로 인해, 중국의 청년층과 지식인들은 혁명 실패로 인한 환멸감을 느끼던 때이다. 1930년대 초의 중국 사회는 당시의 젊은이들을 환멸과 적막에 잠기게 하였다. 군벌의 득세가 가져온 사회 불안과 정치적인 불안정 및 매관 자본의 난립으로 인한 반식민지적 경제 상황은 농민의 파산·노동자의 쫓겨·경제 공황 등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北平·上海 및 沿海 等地와 같이 공업이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지식층들은 出路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다.<sup>7)</sup> 시 속의 「적막한 비 내리는 골목」 「무너진 담장, / 비 내리는 골목」은 당시 암울했던 중국의 상황이며 시적 자아가 인식한 현실이다. 「라일락」같은 「아가씨」는 아름다운 이상이며 희망의 상징이며, 추악한 현실로부터 자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여신이다. 시적 자아는 구원의 상징인 아가씨를 기다리며 홀로 방황한다. 아가씨는 꿈 같처럼 왔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희망이 사라진 뒤의 절망과 허무뿐이다. 유일한 구원의 상징인 아가씨의 형체·눈길·향기마저 사라진 현실에서, 그는 환멸의 비애와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여전히 이상과 희망의 상징인 아가씨를 기다리며, 비 내리는 골목에서 고통스럽게 배회하고 있다.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아의 모습이며 그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유리꼬(百合子)〉 〈아예꼬(八重子)〉에는 異國 여성 통해 꿈·이상을 상실한 시인의 자아를 형상화하고 있다.

7) 李麗 〈評《現代》雜誌的歷史功績〉,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作家出版社 1987년 4월), 164-165쪽.

百合子是懷鄉病的可憐的患者，  
因為她的家是在燦爛的櫻花叢里的；  
我們徒然有百尺的高樓和沈迷的香夜；  
但溫煦陽光和朴素的木屋總常在她緬想中。

她度着寂寂的悠長的生涯，  
她盈盈的眼睛茫然地望着遠處；  
人們說她冷漠的是錯了，  
因為她沈思的眼里是有着火焰。

她將使我為她而憔悴嗎？  
或許是的，但是誰能知道？  
有時她向我微笑着，  
而這憂郁的微笑使我也墜入懷鄉病裏。

〈百合子〉

유리꼬는 가련한 향수병 환자,  
찬란한 벚꽃 우겨진 속에 그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지 높은 빌딩과 흙뻑  
취하는 향기로운 밤 뿐,  
그러나 따사로운 햇빛과 소박한 오  
두막은 언제나 그녀의 추억 속에  
있다

그녀는 쓸쓸하고 긴 생애를 보낸다.  
웃고 있는 눈동자는 무심하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  
사람들은 그녀가 냉정하다고 말하  
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려깊은 그녀의 눈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귀찮게 굴지도 모르겠  
다?  
어쩌면 그럴지도, 그러나 누가 알  
런지?  
때로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짓기도  
하지,  
하지만 우울한 미소는 나를 향수병  
으로 추락시킨다.

〈유리꼬(百合子)〉 1,2,3연

〈유리꼬(百合子)〉에는 고향 일본을 떠나 중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댄서인 유리꼬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시적 자아는 異國에서 화류계 생활을 하며 벚꽃 우겨진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그녀의 삶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관조하다, 향수병에 걸린 유리꼬의 우울한 미소를 통해 「향수병 속으로 추락」하는 동병상련의 고통을 느낀다.

八重子是永遠地憂鬱着的，

야에꼬는 영원히 우울하다，

我怕她會鬱瘦了她的青春。  
是的，我爲她的健康挂慮着，  
尤其是爲她的沈思的眸子。

發的香味是簪着遼遠的戀情，  
遼遠到要使人流淚：  
但是要使她歡喜，我只能微笑，  
只能象幸福者一樣地微笑。

因爲我要使她忘記她的孤寂，  
忘記繫着她的渺茫的鄉思，  
我要使她忘記她在走着  
無盡的，寂寞的，淒涼的路。

而且在她的脣上，我要爲她祝福，

爲我的永遠憂郁着的八重子，  
我願她永遠有着意中人的臉，

春花的笑臉，和初戀的心。  
〈八重子〉

그녀가 자신의 청춘을 여위게 할까 두렵다.  
그렇다, 나는 그녀의 건강이 염려된다,  
특히 사색에 잠긴 그녀의 눈동자가.

머리 내음은 아득히 먼 사랑을 꽃고서,  
저 멀리서 찾아와 눈물 흘리게 한다;  
그러나 그녀를 기쁨에 들뜨게 해도, 나는 다  
만 미소지을 뿐,  
행복한 사람처럼 미소를 지을 뿐.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자신의 고독을 잊고,  
그녀를 휘감고 있는 아득한 향수를 잊고,  
그녀가 끝없이, 쓸쓸하고 처량한 길을  
가고 있음을 잊게 해주고 싶기 때문.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그녀를 위해  
나는 축복하련다.

영원히 우울해 하는 나의 아예꼬를 위해,  
그녀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영원토록  
간직하기를 바라며,  
봄꽃의 얼굴과 첫사랑의 가슴을.

〈아예꼬(八重子)〉

〈아예꼬(八重子)〉의 아예꼬 역시 중국의 대도시 화류계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댄서로, 떠나 온 일본의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자이다. 화자는 고향을 상실한 아예꼬의 「쓸쓸하고 처량한」 삶을 빌어 안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화자 자신의 영혼을 발견한다.

두 편의 인용 시에서 유리꼬와 아예꼬는 화려한 都市에서 생활하는 舞姬로, 일본의 고향을 그리워하다 향수병에 걸린 불행한 女人들이다. 시인은 향수병에 걸린 여인의 형상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이상과 낙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낯선 타국의 화류계 여인이라는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유리꼬와 아예꼬 모두 아련한 추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리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꼬와 야에꼬가 안식처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바로 꿈을 찾아 현실에서 방황 갈등하는 시인의 모습이며 시인 자아의 投射體이다. 향수병에 걸렸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슬픔과 실의에 빠진 여성 형상은 꿈·이상을 상실한 시인의 자아이며, 상실한 꿈·이상을 찾아 해매는 시인의 모습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들의 눈물과 한숨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위안 받으려는 심리적 기제라 할 수 있다. 가공의 여성에게 시인의 자아를 투사하여 형상화하고 자신의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슬픔을 위로 받고 극복 의지를 회복하려는 의도된 장치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참된 자아의 회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戴望舒가 인식한 당시 현실은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스스로 「멀고 먼 나라를 동경하는 자, 난, 나는 적막한 생물」<sup>9)</sup>라고 인식하였던, 孤立된 그의 自我는 현실과 결코 화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즉 불만스러운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다만 이국적 여성 상징을 통해 고향과 안식처의 부재로 인한 비애와 고통을 드러내고 상실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 노래함으로써, 불만족한 현실의 喪失感을 克服하고 慰安 받기를 원하고 있다.

8) 김경중 <Bibliotherapy에서 문학-정보의 치료적 기제>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제14집, 2006년 5월, 79-181쪽 참조: 문학은 우리 자신이나 어느 누구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문학과 의 만남은 지금까지 왜곡되고 편협한 자신과 세상에 대한 통찰과 생각의 구조를 다시 형성하게 해서 자신에 대한 존중, 감사와 기쁨, 사랑,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까지 잃어버린 행복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 분석학적 관점에서의 문학적 치료 원리로 동일시, 정화(카타르시스),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학에서 동일시는 작품의 내담자가 등장인물에 자신의 감정, 사고, 성격, 태도를 투사하거나, 반대로 등장인물의 이상적인 감정, 사고, 성격, 태도 등을 자신에게서 찾아내서 내면에 섭취(ingestion) 하고 증대시켜 나가면서, 문학작품에서 자아를 이끌어 내는 가장 전형적인 지각 과정이다. 이렇게 동화(同化), 이화(異化), 중립, 체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작품에 개입하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켜가게 되는 것이다.

9) 「遼遠的國土的懷念者, 我, 我是寂寞的生物。」〈我的素描〉

## IV. 순수와 회귀 본능의 상징

戴望舒 詩의 서정적 특징 중 하나가 고향을 향한 그리움 즉 鄉愁이다. 여기서의 고향은 시인이 태어나 자란 삶의 터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다. 그가 간절히 귀향하길 원하는 고향은 현실에 존재하는 地理的 空間이 아니라, 현실을 떠나고 存在를 떠난 이상향이다. 현실에서 상처받은 시인의 영혼으로 하여금 安息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장소이다. 때문에 시 속에서 실존적인 고향을 부정하는 대신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樂園世界·유토피아를 향한 강한 노스텔지어를 드러낸다.

戴望舒가 시에서 강한 歸鄉 의식을 드러내는 공간은 하늘이다. 그는 하늘을 자신의 원초적 故鄉으로 상징하고, 「언제나 하늘의 소식에 관심을 보였고,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다.(他總是關心着天上的消息, 渴望着回返到天上的故鄉去.)」<sup>10)</sup> 순수와 회복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하늘 고향은 어머니와 모성애라는 상징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다음 인용 시에서 시인은 스스로 鄉愁病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푸른 하늘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懷鄉病, 哦, 我啊,  
我也是這類人之一,  
我呢, 我渴望着回返  
到那個天, 到那個如此青的天,  
在那里我可以生活又死滅,  
像在母親的懷里,  
一個孩子笑着和哭着一樣.

我啊, 我是一個懷鄉病者,  
對於天的, 對於那如此青的天的;  
那裏, 我是可以安憩地睡眠,  
沒有半邊頭風, 沒有不眠之夜,  
沒有心的一切的煩惱,  
它, 已不是屬於我的,

향수병, 아, 나는,  
나도 이런 사람들 중 하나인가,  
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저 하늘로, 저토록 푸른 하늘로,  
그 곳에서 나는 살수도 죽을 수도 있으리.  
엄마의 품속에서,  
아기가 웃고 우는 것처럼.

나는 향수병자,  
하늘을 향해, 이렇게 파아란 하늘을 향해;  
그곳에서 편안히 잠잘 수도 있으리,  
편두통도 없고, 불면의 밤도 없이,  
마음의 모든 번뇌도 없으리,  
이런 마음,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니지,

10) 紀弦, 〈記戴望舒〉, 痲弦 編, 《戴望舒卷》(臺北: 洪範書店 1983년), 167-168쪽, 「他總是關心着天上的消息, 渴望着回返到天上的故鄉去。」

而有人已把它拋棄了，這心，           누군가 그것을 던져버렸다，  
象人們拋棄了敝鳥一樣。            낮은 신을 버리듯.  
〈對於天的懷鄉病〉                   〈하늘을 향한 노스텔지어〉 2,3연

시인이 태초의 고향으로 규정된 「과아란 하늘」은 현실에 존재하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현실을 벗어난 형이상학적 초월적 고향이다.<sup>11)</sup> 현실에 존재하는 시인의 자아가 귀향하기를 갈망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상실된 고향이다. 하늘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함과 따스함이 넘치는 모성 공간이자 원초적 충족성을 갖추고 있기에 슬픔이나 고독과 소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갈 수 있는 母胎같은 곳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상처받은 시적 자이는 그 곳으로 돌아가 엄마 품안의 아기처럼 울고 웃으며 평화롭게 안식하고, 불면의 밤과 편두통 그리고 모든 번뇌도 사라져,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 발이 묶인 화자로서는 그러한 지향 자체가 멀고 먼 동경일 뿐 지상의 삶에 속박 받고 있는 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시인에게 어머니는 안식과 위로를 주는 원초적 고향의 상징이다. 하늘에 대한 동경과 歸鄉을 통해 순수성을 회복하고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시인의 자아가 고향 상실감을 드러내며 하늘 고향을 향한 강한 회귀를 표출한다는 것은 현실의 삶이 건디기 힘들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며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지상과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자신의 이상향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대망서 시의 鄉愁에는 喪失된 樂園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고, 이것은 悲劇的 現實 認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이기에 그리움과 함께 비애의 정조를 지니게 된다. 잃어버린 고향·세계를 그리워하며 유랑하거나 방황하는 형상은 바로 시인 자신의 모습으로, 그의 시 가운데

11) 김종철 《시와 역사적 상상력》(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년), 11쪽 참조: 인간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는데, 1. 생래적인 현실적 고향 2. 현실을 벗어난 형이상학적 초월적 고향이다. 인간은 현실의 갈등·대립을 벗어나 안식처인 고향을 추구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희망한다.

12)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연구〉, 《한국학논집》 28집(1996년),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7-10쪽 참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삶이 유한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까닭에 완전하고 영원한 피안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희망을 추구하게 된다. 즉 낙원세계 또는 유토피아를 동경한다.

종종 발견된다.<sup>13)</sup> 다음의 시편은 이러한 형상을 담고 있다

|                |                                    |
|----------------|------------------------------------|
| 故鄉蘆花開的時候，      | 고향의 갈대꽃이 필 때，                      |
| 旅人的鞋跟染着征泥，     | 나그네의 신발 뒤축은 먼 旅路의 흙으로 더러<br>워지고，   |
| 粘住了鞋跟，粘住了心的征泥， | 신발 뒤축에 달라붙고， 마음에 달라붙은 旅路<br>의 흙먼지， |
| 幾時經可愛的手拂拭？     | 언제쯤 사랑스러운 손길이 털어 낼 수 있을지？          |
| 〈旅思〉           | 〈나그네 생각〉 1연                        |

시 속 나그네는 현실 공간 그 어디에서도 安住할 수 없고 安息處를 찾아 유랑·방황하는 형상이다. 나그네 신발에 달라붙은 흙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현실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형상과 旅程의 고단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14)</sup> 유랑 생활로 인한 흙먼지는 신발뿐만 아니라 마음 속 까지 「달라붙은 旅路의 흙먼지」이기에, 「언제쯤 사랑스러운 손길이 털어 낼 수 있을지?」 간절히 기다린다. 「사랑스러운 손길」이 의미하는 것은 나그네가 만나기를 희망하는 대상으로, 안식과 위로를 주는 어머니의 손길일 수도, 라일락 같은 아가씨의 손길 일 수도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손길을 상징하며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 유랑으로 지친 心身을 위로받기 원하고 있다.

하늘을 자신의 원초적 고향으로 여겼던 戴望舒에게 혼돈스러운 현실 지상의 삶 자체는 욕구불만의 원인이자 대상이었다.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벗어나 잃어버린 고향을 대신할 安息處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하늘로 귀향하기를 원하는 한편 自然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여기서 自然은 단순한 田園 空間이 아니라, 이상향으로서 순진무구한 세계이다. 이곳으로 돌아가 현실의 좌절과 회의를 극복하고 훼손된 자아를 위로 받으려 한다.<sup>15)</sup>

13) 周敬老陽 著 《現代派文學在中國》(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86년), 65쪽에서 「핵심 상징은 바로 시인 자신의 자아임을 발견한다. 일례로 〈對於天的懷鄉病〉의 향수병자, 〈單戀者〉의 짝사랑에 빠진 자, 〈尋夢者〉의 꿈을 찾는 이, 〈妾薄命〉의 기구한 첩, 〈流浪人的夜歌〉의 유랑인, 〈夜蛾〉의 밤나방, 〈Mandoline〉의 만돌린 등 이러한 상징은 모두 자아의 화신으로, 자아 영혼의 기탁처로 삼아 체계를 구성하여 시인의 고민·방황·추구하는 심정을 토로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14) 盧斯飛·劉會文 編 《馮至·戴望舒詩歌欣賞》(廣西教育出版社 1989년), 162쪽.



孤心逐浮雲之炫燁的卷舒,  
慣看青空的眼喜侵闕的青燕.

你問我的歡樂何在?  
——窓頭明月枕邊書.

.....  
渴飲露, 飢餐英;  
鹿守我的夢, 鳥祝我的醒.  
你問我可有人間世的罣慮?

——聽那消沈下去的百代之過客的蛩音.  
〈古意答客問〉

외로운 마음은 찬란하게 변화하는  
뜬구름을 좇고,  
푸른 창공을 바라보는데 습관된 눈  
은 문지방을 넘어온 푸른 잡초를  
즐긴다.  
그대 내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창가의 밝은 달과 머리맡 책에 있  
다고,

.....  
목마르면 이슬을 마시고, 배고프면  
꽃잎을 따먹고;  
사슴이 내 꿈을 지켜 주고, 새가  
내 깨어남을 축복한다.  
그대 내게 인간세의 근심이 있는지  
묻는다면?  
저 의기소침한 나그네 발걸음 소리  
를 듣는다고.  
〈옛날 式으로 그대에게 대답하며〉  
1,3연

시 속에서 화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초월한 仙人과 같이, 자연과 완전히 동화되  
어 합일에 도달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구분·대립하고 갈등하는 존  
재가 결코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과 만물은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자연은 결코 서로 구분·대립하고 갈등하는 세계가 아니라 대자연 속에서 인간과  
만물은 하나로 조화를 이룬 세계이다. 바로 「사슴이 내 꿈을 지켜 주고, 새가 내  
깨어남을 축복」 하는 세계이다. 바로 시인의 자아가 꿈꾸는 이상향이다.

따라서 회귀공간으로서 자연은 불만스러운 現實을 초월하는 장소이며, 현실의 상  
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탈속적 공간이다. 이러한 이상적 공간에서의 행복한 삶은 자

15) 이진청, 《한국전원시 연구》(서울: 문학세계사 1986년), 14쪽 참조; 서구의 전원시가  
황금시대를 지향하며 양치기들의 생활과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의 황  
금시대란 상실된 시기이다. 따라서 전원은 현재의 좌절이나 회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  
스텔지어의 근원이 되기 마련이다라고 하고 있다.

연친화적 모습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성 상징을 통해 회귀 실현의 공간으로 더욱 사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村里的姑娘靜靜地走着,  
提着她的蝕着青苔的水桶;  
濺出來的冷水滴在她的跣足上,  
而她的心是在泉邊的柳樹下.

這姑娘會靜靜地走到她的舊屋去,  
那在一棵百年的冬青樹陰下的舊屋,  
而當她想到在泉邊吻她的少年,  
她會微笑着, 抿起了她的嘴脣.

她將走到那古舊的木屋邊,  
她裝在那里驚散了一群在啄食的瓦雀,  
她將靜靜地走到廚房里,  
又靜靜地把水桶放在干芻邊.

她將幫助她的母親造飯,  
而從田間回來的父親將坐在門檻上抽煙,  
她將給豬圈里的豬喂食,  
又將可愛的鷄趕進它們的窠里去.

在暮色中吃晚飯的時候,  
她的父親會談着今年的收成,

시골 아가씨가 조용히 걸어가네,  
푸른 이끼 낀 물통을 들고서;  
차가운 물방울 튀겨 맨 발 위에 떨어져도,  
그녀 마음은 우물가 버드나무 아래에  
있네

아가씨는 조용히 그녀의 낡은 집으로  
갈 거라네,  
백년 묵은 감탕나무 그늘 아래의 낡은  
집으로,  
우물가에서 도련님과 입맞춤을 떠올  
리고,  
그녀는 미소지으면서, 자기 입술을 오  
무릴거라네.

그녀는 낡고 오래된 오두막집으로 갈  
거라네.  
거기서 곡식을 쪼고 있던 참새를 놀라  
달아나게 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살며시 물통을 마른 짚더미 옆에 내려  
놓을 거라네.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저녁을 짓고,  
밭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문턱에 앉아  
담배 피우고,  
그녀는 우리 안의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귀여운 닭들을 닭장 안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네.

저녁 노을 속에 밥을 먹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올해의 수확을 얘기하며,

他或許會說到她的女兒的婚嫁,  
而她便將羞怯地低下頭去.

아마도 그녀의 혼사 얘기를 꺼낼지도,  
그럼 그녀는 금새 부끄러워 고개를 떨  
굴 것이라네.

她的母親或許會說她的懶惰,  
(她打水的遲延便是一個好例子.)

어머니는 아마도 그녀의 게으름을 얘기  
할 것이라네,  
(그녀가 물 길으며 늦장 피우는 것을  
나무라며),

但是她會不聽到這些話,  
因為她在想着那有点魯莽的少年.

그러나 그녀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네,  
그녀는 조금 성급하게 굴었던 청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村姑〉

〈시골 처녀〉

이 시는 총 6연으로 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추억 속에 있음직한 고향의 모습과 삶을 서정성 넘치게 묘사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안식처인 고향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러 넘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다. 평화로운 시골 저녁을 배경으로 맨 발로 물 길는 순박한 시골 처녀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심정 그리고 어느 農家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온하고 화목한 가정의 정경을 그려내어 시골 고향 집의 풍경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석양 아래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 구성원의 모습은 화목하고 평온해 보인다. 순수의 공간으로서 고향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합일 그리고 화목한 가족과의 애정 어린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이다. 이 시에 그려진 전원 속의 삶은 물질적 풍요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켜보는 시적 화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꿈꾸는 이상향이 소박한 전원, 고향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농촌의 목가적 풍경과 그 곳의 정겨운 삶을 묘사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공간, 구체적인 현실 공간을 제시하여 불만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안식처를 그려보며 만족해하는 것은 그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향의 情景를 떠올리게 하고 순수 공간으로 이끄는 심정적 통로는 바로 시골

치녀이다. 따라서 시골치녀는 회귀하고 싶은 순수한 고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시인이 도달할 수 없는 과거의 공간이자 추억의 시간인 고향을 향한 그리워하는 밑바탕에는 안온하고 화평한 삶에 대한 염원이 깔려 있고, 현재의 훼손된 삶과 대비되는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다. 인간의 의식에서 가장 편안하고 충족된 시간이 유년 시절로 기억되며, 그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의 공간이 가장 안온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시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유년에 대한 그리움이며,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이며,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다.<sup>16)</sup> 이러한 순수의 회귀 공간은 어머니에 대한 향수와 童心의 상징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燈守着我， 劬勞地，  
凝看我眸子中  
有穿着古舊的節日衣衫的  
歡樂兒童，  
憂傷稚子，  
象木馬欄似地  
轉着，轉着，永恒地……

등불은 나를 지켜 준다, 수고스럽게,  
내 눈동자 속을 응시한다.  
낡은 명절 옷을 입고서  
기뻐하는 아이,  
슬퍼하는 어린아이,  
회전목마처럼  
돌고, 돌고 있다, 영원히……

而火焰的春陽下的樹木般的  
小小的爆裂聲，  
搖着我，搖着我，  
柔和地。

불꽃의 봄볕아래 나무처럼  
작은 폭발음,  
나를 흔든다, 나를 흔든다,  
부드럽게.

美麗的節日萎謝了，  
木馬欄猶自轉着轉着……  
燈徒然懷着母親的劬勞，  
孩子們的彩衣已褪了顏色  
〈燈〉

아름다운 명절은 시들었고,  
회전목마는 여전히 돌고, 돌고 있다……  
등불은 부질없이 어머니의 수고를 품고 있고,  
아이들의 색동옷은 이미 바래졌다.  
〈등〉 1,2,3연

16) 가스통 바솔라르 《공간의 시학》(서울: 민음사 1990년), 116-117쪽 참조: 「어린 시절의 추억 자체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때에 느꼈던 아름다움, 이중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어린 시절은 그 자체가 정녕 인간의 이상향, 그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이 지향하는 원형이 된다.」

등불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유년 시절 명절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그리고 슬퍼하는 아이들이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며 아련한 향수 속으로 이끈다. 등불 아래 밤새도록 어머니의 수고로 명절 새 옷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헌 옷이 되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다. 영원한 새 옷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도 사라지기 때문에 서글퍼진다. 초현실주의 기법의 영향으로 詩想의 도약이 심해 난해하기는 하나, 등불에 대한 응시와 끝없는 돌아가는 「목마대」의 회전을 빌어 시간과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였으며<sup>17)</sup>, 분위기 면에서 과거의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그리는 향수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시적 자아를 과거로 이끄는 것은 등불이지만, 유년의 시간과 동심을 상징하는 것은 어머니의 수고와 명절 옷이다. 어머니의 손길에서 탄생된 명절 옷을 통해 회귀하고픈 순수했던 동심의 시공간을 형상화 하고 있다.

## V. 나오기

대망서는 개인적으로도 비극적 삶을 영위하였다. 반봉건 반식민지 시대에 처했던 중국의 지식인으로서도 주변인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목숨 받쳐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과 이별에서 소외와 고독을 체감하였고, 결혼을 한 후에는 한 가정으로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삶을 꾸려갔지만 결국 이혼으로 가족과 떨어져 가난이라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한 생활을 겪어야만 했다.<sup>18)</sup> 격변기의 지식인으로서도 역사의 소외감을 절감했으며, 시대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자학과 허무에 빠지기도 했다. 역사의 주변인, 변두리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던 것이다. 선천적인 기질조차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었고, 어린 시절 앓은 천연두 때문에 남은

17) 민용태 지음, 《로르카에서 네루다까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5년), 23-24쪽 참조: 연상의 전개와 다른 시간·공간으로 의식을 유동시키는 수법에서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이 엿보인다. 로르카의 〈목마대〉로부터 상징적 언어와 반복·후렴의 구사 면에서 영향 받았다.

18) 1936년 5월 소설가 穆時英의 여동생 穆麗娟과 결혼 후 큰 딸 詠素(1937년 출생), 1943년 5월 廣東省 출신의 楊麗珍(楊靜)과 재혼 후, 詠絮(1943년 출생), 詠樹(1945년 출생) 두 딸을 얻었다. 이후 楊麗珍의 불륜 때문에 1948년 6월 정식으로 이혼한다.

곰보자국은 평생 그를 괴롭혀 심리적 콤플렉스를 형성하였다.<sup>19)</sup> 이렇게 개인사적, 시대사적 질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비극의 연속이었다. 풍부한 상상력과 관능, 퇴폐를 상징하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번역 출판해서, 중국에 소개한 상징주의 시인 대망서가 모택동 작품을 佛語로 번역하다가 삶을 마감하였다는<sup>20)</sup>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대망서이기에 그의 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 그의 시에 나타난 여성 역시 다층적인 양상을 띤다.

지금까지 대망서 시에 나타난 여성 상징을 욕망과 절망의 대상, 상실과 자기 극복의 형상화, 순수와 회귀 본능의 상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의 시에서 서정적 자이는 여성 상징을 통해 현실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려고 한다. 그가 작품 속 여성 형상을 빌어 자신의 내면세계를 투사하고 드러낸 것은 현실의 삶을 탐색하고 새로운 극복의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욕망과 절망의 대상으로서 여성은 아가씨, 연인, 여인,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을 담는 한편 비애와 상실도 드러낸다. 이것은 실제 시인과 施絳年の 사랑·失戀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경험한 열렬한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대망서는 남성 시인임에도 여성 화자와 여성적 태도를 빌어 연정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서면에서 비극성을 더욱 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19) 대망서의 품성과 기질에 대해, 주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① 鄭家鎮, 〈我認識的戴望舒〉, 《香港文學》, 1985년 2기, 25쪽; 香港 滄海詩集 《星座》를 함께 편집하였던 鄭家鎮의 증언: 「그는 체구가 건장한 사람으로, 곰보였지만, 사람은 오히려 부드럽고, 선비 기질이 있었다. (他是一個魁梧大漢, 大麻子, 人却和藹, 好一副書生氣質)」
- ② 馮亦大, 〈戴望舒在香港〉, 《新文學史料》, 1980년 4기, 164쪽; 후배 문인 馮亦大의 회고: 「근시 안경 너머로 두 눈에는 부드러운 눈빛을 띄고 있었으며, 알 수 없는 우울을 지니고 있었다. (透過近視眼鏡, 兩眼露出柔和的光芒, 帶有莫名的憂鬱)」 “그의 두 손은 도리어 부드럽고 연약하여, 다소 소녀의 손과 같았다. ....그가 말하는 목소리는 나지막하였다, (而他的雙手却又是那麼柔軟, 有點象少女的手似的. ....他說話的聲音是那麼低沈.)」
- ③ 王文彬, 《戴望舒 穆麗娟》(中國青年出版社, 1987년), 8쪽; 王文彬과 施蛰存的對談: 「왜 어렸을 적에 나의 천연두를 다 치료하지 않으셨나요? (爲什麼小時候沒有把我的天花治好?)」

20) Gregory Lee, 《DAIWANGSHU》(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89년), 104쪽, 馮亦大와의 인터뷰 내용 참조.

상실과 자기 극복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비 내리는 골목을 스쳐 지나가는 아가씨, 일본 여성인 유리꼬(百合子), 아에꼬(八重子)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라일락 같은 아가씨는 이상·꿈·희망의 상징이자 화신이다. 동시에 허무와 상실을 안겨주는 원인이기도 하다. 〈雨巷〉에서 시인은 이상을 상징하는 아가씨와의 만남을 갈망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꿈과 희망을 찾아 방황한다. 비록 이상 실현은 실패하고 상실에 빠지지만, 끊임없이 꿈·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또한 유리꼬(百合子), 아에꼬(八重子)는 고향인 일본을 떠나 중국에서 생활하는 댄서로, 시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가상의 여성 형상이다. 집·고향을 떠나 화류계에서 생활하는 그녀들의 모습과 상황은 꿈·이상을 잃어버린 시인의 형상이다. 안식처로서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녀들은 꿈을 찾아 현실에서 방황 갈등하는 시인의 또 다른 자아이다. 이들 가상의 이국적 여성 상징을 통해 서정적 자아를 드러내며 잃어버린 세계와 상실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 노래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喪失感을 克服하고 慰安 받기를 원하고 있다.

순수와 회귀 본능을 상징하는 여성은 시골 처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늘을 어머니 품과 같은 곳으로 여기고 돌아가길 원했던 시인에게 자연·전원은 하늘 고향을 대신하여 회귀하고픈 순수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고향 마을의 목가적 풍경과 人情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공간을 제시하고 현실극복 의지의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시골 처녀는 순수와 회귀 공간인 고향을 상징하며, 평화로운 고향의 情景를 떠올리고 고향으로 이끄는 심정적 통로이다. 어머니는 안식과 위로를 주는 원초적 고향을 상징한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고향으로, 회귀함으로써 모성애를 통해 순수성을 회복하고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參考書目】

Gregory Lee 《DAIWANGSHU》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89

梁仁 編《戴望舒全編》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91

陳丙瑩《戴望舒評傳》重慶, 重慶出版社, 1993

- 瘴弦《戴望舒卷》臺北, 洪範書店, 1983
- 孫玉石 主編《戴望舒名作欣賞》北京, 中國和平出版社, 1993
- 王文彬《戴望舒穆麗娟》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5
- 盧斯飛·劉會文 編《馮至·戴望舒詩歌欣賞》廣西教育出版社, 1989
- 周敬老陽 著《現代派文學在中國》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86
- 王文彬,《戴望舒 穆麗娟》中國青年出版社, 1987년
- 천이두《綜合에의 의지》서울, 일지사, 1974
- 김준오《詩論》서울, 삼지원, 1995
- 김종철《시와 역사적 상상력》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
- 가스통 바슐라르, 김현 역《몽상의 詩學》서울, 민음사, 1990
- 金容稷《文藝思潮》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9
- 馮亦代《戴望舒在香港》;《新文學史料》1980년 4기
- 민용태《로르카에서 네루다까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5
- 김홍중《멜랑콜리와 모더니티》;《한국사회학》제40집 3호, 2006
- 이건청《한국전원시 연구》서울: 문학세계사 1986
- 李麗〈評《現代》雜誌的歷史功績〉;《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作家出版社, 1987.4
- 鄭家鎮〈我認識的戴望舒〉;《香港文學》, 2기, 1985.
- 馮亦大《戴望舒在香港》;《新文學史料》, 4기, 1980.
- 拙稿〈戴望舒 詩에 나타난 페미니즘〉;《중국문학연구》18집, 1999. 6

## 【中文提要】

〈戴望舒的詩篇里所表現的女性象徵〉

戴望舒的詩歌得自傳統文化的精氣滋養, 加上現代主義詩歌的藝術熏陶, 體現了中國的象徵主義詩歌, 并認為他在中國傳統的詩歌向現代詩歌的發展過程中做了很大的貢獻。在總體上, 戴望舒的詩篇里有女性的性向, 本人已經從戴望舒詩的女性偏向性和外來文藝思潮的影響關係的角度來進行分析。(《中國文學研究》18輯1999年6月) 本稿論述目的在戴望舒的詩篇里所表現的女性象徵和詩人自我意識的關係, 進而更深刻的理解詩人戴望舒的精神意識世界。本論文內容把女性象徵分爲三個部分來進行研究, 慾望與絕望的對象, 喪失與自



我克復的形象，純粹與回歸本能的象徵，通過以上三個角度的分析，1. 戴望舒詩中女性的形象作為詩人的愛情的對象描繪戀人，小姐，女人。這些女性反映到戴望舒的戀人「施絳年」的女性性與戴望舒本人潛意識中的女性性。2. 詩中的喪失與自我克復形象有「雨巷」的小姐，日本舞姬百合子，八重子的形象，這些女性實際上還是精神上皆痛失家園的孤獨的懷鄉病者，可是內面意識上尋夢者，理想追求者。所以認為戴望舒詩中的理想追求女性形象是懷鄉病者與尋夢者的結合形象。3. 詩中的純粹與回歸本能的象徵有村里的姑娘與天上的母親。通過故鄉村里的姑娘描寫了人間內面原初的故鄉心象，通過描寫了詩的主人公形象對母性愛的內涵作深入探索。

### 【主題語】

中國現代詩，戴望舒，女性人物，女性象徵，女性形象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